극단의 시대, 해법은 '불이법문'



지금, 여기에서 깨닫는 유마경 강의
성태용 지음
북튜브 펴냄
1만5000원

대승불교 재가주의 담은 경전
한학자 성태용 교수가 해설해
"위대한 긍정 가르침 담겨져"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중국 돈황 벽화에 그려져 있는 유마 거사의 모습.

유마 거사는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선지식 중 독특한 위치에 있다. 그가 등장하는 〈유마경〉에서 유마 거사는 출가 중심의 부파 불교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대승불교의 참다운 뜻을 밝히고 있다. 실제 유마 거사는 경전에서 비야리성 부호이기는 하지만 재가불자로서 불교의 높은 깨달음을 성취하고 청정한 보살행을 실천해 재가불자들의 이상형으로 꼽힌다. 실제 '시불(詩佛)'이라고도 칭해졌던 당나라 시인 왕유(王維)는 유마 거사를 자신의 롤모델로 삼기도 했다.

대승의 정신이 잘 드러나는 불교 경전 〈유마경〉을 한학자 성태용 前건국대 철학과 교수가 해설했다. 성 교수는 자신의 책 〈지금, 여기에서 깨닫는 유마경 강의〉에서 〈유마경〉이 자신이 불교와 세상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시각을 제공했음을 고백하며, 이 경전이 강조하는 대승불교 정신이 작금의 극단적 진영논리를 해결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유마경〉의 핵심 가르침인 '불이법문(不二法門)'에 있다. 재가자와 수행자를 나누고, 더러운 속세와 청정한 불국토를 나누는 것이 '둘(二)'로 나누는 분별이라면, 우리의 일상이 곧 깨달음을 이루는 바탕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가 바로 불국토를 이루는 근본임을 아는 것이 바로 '불이법문'의 가르침이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났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이 소승의 이상이자 둘로 나누는 생각이라면, '연꽃은 진흙 속에서만 피어난다는 것', 다시 말해 진흙(속세의 삶)이 없다면 연꽃(깨달음)도 피어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삶에 대한 위대한 긍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유마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는 둘로 나누는 분별과 내 것만이 옳다는 집착을 부수는 불이법문의 지혜와 상대를 배제하기보다 이해하려는 긍정의 정신을 가지고 나와 세상을 바라 볼 때, 양극화와 폭력으로 점철된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유마경〉은 지금 우리 세상, 우리 불교계의 현실에 가장 필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경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마경〉의 핵심사상이라 할 수 있는 '둘이 아닌 진리의 문'(不二法門)은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승의 가르침에 대하여 한 치의 용서도 없는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는 〈유마경〉의 가르침은 이 시대 새로운 대승운동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유마경〉에는 또한 위대한 긍정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 머리말 中

세상을 구하는 '자발적 가난'



신자유주의와 상생의 불교경제학
김광수 지음
운주사 펴냄
2만원

역사적으로 불교, 특히 선불교에서는 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금기시해왔다. 그래서 불교는 세속을 떠난 은둔적이고 신비적인 이미지로 인식돼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불교는 타종교에 비해서 세상에 대한 봉사, 복지, 참여 비중이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이 책은 불교의 이런 태도가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오히려 불교야말로 사회문제와 경제문제에 관심을 가져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경전에 나타난 부처님 말씀과 사상, 특히 경제사상에서 찾아내 밝히고 있다. 아울러 구체적인 방법으로 보살행에 바탕을 둔 자발적 가난에 의한 공동체 운동도 제시하고 있다.

책 전반부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폐해를 다뤘다. 시장경제, 신자유주의의 폐해로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의 존속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 '시장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첫 머리로 삼았다. 저자는 무엇보다 지구 파괴, 심성 파괴를 초래하는 것으로 자본의 무한대적인 이윤추구와 그로 인한 과잉생산 및 소비, 이에 따른 무한경쟁과 실업문제를 꼽는다.

제2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불교경제 시각에서 고민한 여러 현인들의 사상을 모아 정리했다. 슈마허의 불교경제, 간디의 기계화와 개발주의, 이노우에 신이치의 지구를 구하는 불교경제 등을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 인간의 심성문제를 짚는다. 결국 과잉생산과 소비를 가능케 하는 원인은 인간의 소유욕, 소비욕에 있으며, 그것을 잘 다스리지 않는 한 시장자본주의의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제4장은 바람직한 대안을 여러 각도에서 논구해본 것이다. 경제문제는 사회집단의 문제지만 그 해결은 사회 제도적인 방법과 개인의 자발적 가난(소욕지족)이라는 양 날개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고삐 풀린 시장경제의 폐해는 제도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개인의 사익추구가 스스로 제어되고 자발적 가난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결국 불가능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제5장에서는 소욕지족을 위한 구체적인 수행법으로서 수행 공동체 운동을 제안하고, 기존 사례들을 모아 제시했다.

이처럼 저자는 불교가 단순히 개인적 수행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세상과 함께 호흡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불교인은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해 자발적 가난을 실천하면서 적극적으로 경제문제와 사회문제에 관여함으로써 보다 나은 세상을 열어나가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 윤호섭 기자

새로 나온 책

과학 · 영성 쟁점 살피다



당신이 우주다
디팩 초프라, 미나스 카파토스 지음
조원희 번역/김영사 펴냄
1만8800원

하버드대 의학박사이자 세계적인 영성 멘토 디팩 초프라가 저명한 물리학자 미나스 카파토스와 함께 새로운 책으로 돌아왔다. 출간 즉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른 〈당신이 우주다〉는 인간 의식의 신비와 우주의 기원, 시간, 공간, 물질, 그리고 관찰자의 의미에 관한 9가지 궁극적인 질문을 면밀하게 검토한다. 현재 과학과 영성의 최전선에서 활발하게 논의 중인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를 넓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과 어떻게 연결돼 있으며, 이러한 연결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대담하고 새로운 이해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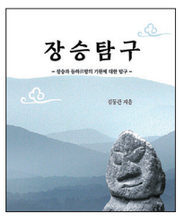
조금 새로운 '도덕경' 해설서



지금이대로 완전하다
김기태 지음
침묵의 향기 펴냄
1만5000원

여느 해설서들과 달리 이 책은 〈도덕경〉을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로, 마음에 관한 이야기로 읽는다. 도덕경은 다른 위대한 경전들처럼 가장 깊은 존재의 진실을 전하는 경전인데, 그 진실이란 결국 '진정한 나는 무엇인가'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도덕경〉을 해설하고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원효 대사의 이야기, 안데르센 동화, 선사들의 어록 등을 곁들이며 다채롭게 설명한다. 또한 지은이 자신이 살면서 겪은 경험들, 그동안 그의 도덕경 강의를 통해 자유를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 흥미진진하게 읽힌다.

우리 장승문화 기원 탐구



장승탐구
김동관 지음
아루나 펴냄
5만원

우리 역사의 수수께끼인 장승과 돌하르방, 서낭당의 유래와 기원을 탐구한 책이다. 특히 석장승과 돌하르방에 있는 '혀'를 통해서, 유사한 세계의 도상을 비교, 탐구하고 그 기원을 추적한다. 장승이나 돌하르방의 옛 사진과 현재 모습을 비교하는 '사진비교' 방법으로 지금의 석장승과 돌하르방도 과거 어느 때엔 '혀'가 있었음을 증명한다.

그런 과정에서 제주도의 돌하르방도 육지의 석장승과 같은 뿌리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며, 나아가서 고조선 시대의 유물인 '청동 도끼 거푸집의 고조선인 얼굴'과 남인도 특유의 액막이 인형인 '드리스티 보마이'가 석장승의 원형 또는 전범(미메시스)임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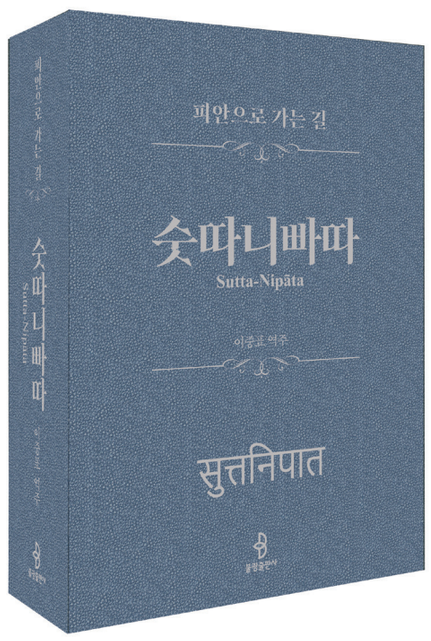
'명장 관우' 관련 진실과 허구는



신이 된 영웅관우
마바오지 지음
양성희 옮김
더봄 펴냄
2만원

관우는 중국 삼국 시대 촉나라 명장으로, 당송 시대 이후 민간에서 신적 존재가 되었다. 보통의 역사 인물이었던 관우가 시간이 지날수록 신성(神性)이 강해지고 오늘날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종의 문화 현상으로 발전한 것은 특수한 역사적 배경이 만들어낸 결과일 것이다. 이 책은 충의와 신의로 대표되는 관우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관우의 정신을 드높이기 위해 위의 두 가지 부분을 모두 살펴보고 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관우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한편 주요 민간 전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한다. 우리가 소설로 알고 있던 관우의 일화와 역사에 기록된 내용을 비교하며 오류를 바로 잡고 관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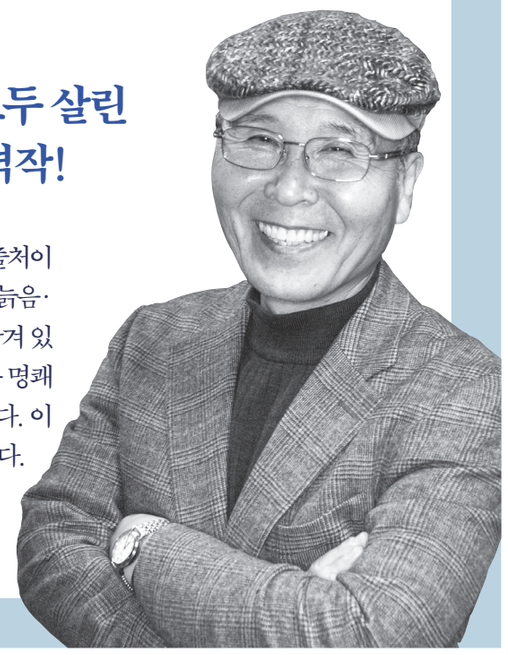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사랑받는 경전
『숫따니빠따』에 대한 가장 완벽한 번역서



피안으로 가는 길
숫따니빠따
Sutta-Nipāta
이중표 역주
696쪽
30,000원

노랫말처럼 흐르는 원전의 형식과 내용의 적확성을 모두 살린
한국불교계를 대표하는 석학 이중표 명예교수의 역작!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등, 주옥 같은 경구의 출처이자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경전, 최초의 경전으로 꼽히는 『숫따니빠따』! 죽음·늙음·자유·욕망·깨달음 등에 대한 붓다의 가르침이 단순하면서도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담겨 있는 이 경전을 한국불교계를 대표하는 석학, 이중표 명예교수가 옮겼다. 원전의 의미는 명쾌하게 드러내면서도 마치 노랫말처럼 부드럽게 흐르는 원전의 형식을 고스란히 살렸다. 이 책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정확하고 소박한 언어에 담긴 불교의 정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